



장미 사진 출처는 freepnglogos입니다.

미리캔버스에서 제작하였으며 세션 중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존재, 여기에 흐드러져〉

나는 여기에 있어

〈개요〉

프랑스 틀루즈의 문호 지부에서 소집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자들을 숙주로 하는 붉은 장미들이 돌아나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 새빨갈게 피어나는 장미의 숙주가 된 이는 섬뜩하도록 아름다운 꽃다발처럼 보입니다. 뿌리내린 이의 피와 살이 완전히 말라붙기 전까지 개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원인 불명의 재액을 해결하기 위해 분과회는, “장미의 도시” 틀루즈의 거리로 출발합니다.

〈시나리오 정보〉

계제: 4계제 중~후

인원: 3인

사이클/리미트: 3사이클/9리미트

사용 데이터: 마기카로기아 대형판, 황혼 선서

<주의사항>

식물과 신체에 대한 묘사가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묘사가 존재합니다. 이종족과 마기카로기아 세계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기믹으로 인해 난이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마기카로기아 룰과 플레이가 익숙한 플레이어에게 추천합니다.

w. PENTO

작성 일시 2023. 2. 21.

!이하의 내용은 GM 정보입니다!

〈배경〉

어느 곳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형체를 이루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허락된 공간만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간에 우연히 생긴 균열 사이로 한 소년이 떨어졌고, 그가 그 충격에 정신을 잃은 중 균열은 닫혀버렸습니다. 그 사이,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자신이 아닌 존재’에 대해 탐구하던 존재는 소년의 기억 속에서 발견한, 그가 좋아하던 꽃인 ‘장미’의 모습을 취하며 그것을 자신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느끼기에, 처음으로 만난 타인의 머릿속에서 가장 선명한 이미지로 존재했던 것이 장미꽃이었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소년은 사고로 벌어진 상황에 동요하면서도, 눈 앞에 보인 장미꽃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타인과의 교감을 이해하게 된 ‘장미’는 그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함께 있을 때에 즐겁다’는 느낌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소년은 자신이 균열 너머에 두고 온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장미의 존재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외로움을 느끼며 장미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장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가 된 이경에 다시금 균열이 생기자, 자신을 잡는 장미를 뒤로 한 소년은 균열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곳으로 뛰어들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이제 소년이 가르쳐준 고독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이다 혼자가 되면 외롭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은 소년이지만, 그는 더이상 장미의 곁에 없었습니다. 존재를 일깨워줄 타인이 사라지자 스스로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과 애정이 뒤섞인 감정을 품은 채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를 기다렸으나 그가 돌아오지 않자,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이경에 지금껏 없었던 규모의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금서 〈울부짖는 존재증명〉을 끌어들이기에 이릅니다. 금서의 힘은 장미의 울음을 그것이 새어나가는 인계 전체로 울려 퍼지게 하고자, 그의 마력이 닿는 모든 곳에 장미를 흐드러지게 피워내는 재액을 일으킵니다. 완전히 금서의 힘에 잠식된 자들은 그저 ‘나는 여기에 있다’며 장미를 대신해 외칩니다. 그의 존재 증명이 어디 있을지 모를 소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장면〉

틀루즈에 있을 때에는 〈틀루즈 장면표〉를, 장밋빛 이경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장밋빛 이경 장면표〉를 사용합니다. 장밋빛 이경에서는 1D6 장면표를 사용하므로 6번 장면표를 2D6 장면표의 운명변전 장면표(7번)로 취급합니다. 틀루즈를 유사 이경으로 취급하여 전투 장면에서 장면표를 굴립니다. 각각의 세계법칙은 다음과 같으며 특수룰의 적용을 잊지 마세요. 적극적인 개변을 권장합니다.

- 틀루즈 : 〈마소농밀〉 〈영적변질〉
- 장밋빛 이경 : 〈불간섭〉 〈지각차단〉 〈마소농밀〉 〈불안정〉 〈활성:짐승〉

틀루즈 장면표(2D6)

2D6	내용
2	낮의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면 반사되는 붉은 벽돌의 색이 아이러니할 정도로 아름답다. 별 마소가 1점 발생한다.
3	기차역에는 이곳을 당장이라도 벗어나려는 사람들과 그들을 저지하는 역무원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 모두 몸 어딘가에 울긋불긋한 꽃잎이 돌아 있다. 짐승 마소가 1점 발생한다.
4	아이들은 몸에 돋은 꽃에도 개의치 않고 광장을 뛰놀며 즐거워한다. 힘 마소가 1점 발생한다.
5	전형적인 남프랑스의 따뜻한 바람이 몸을 감싼다. 나무끼는 꽃잎이 반짝거리며 이슬을 날린다.
6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에, 장미꽃으로 얼굴이 뒤덮인 사람이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마치 꽃에 물을 주는 모양새다.
7	돌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마력을 두른 살갓을 깊게 베어, 마치 영혼을 건드리는 것만 같다. 장면 플레이어는 랜덤 특기로 판정한다. 실패할 시 운명 변전이 발생한다.
8	전염병이 뒤덮은 도시의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불어오는 바람이 끔찍할 정도로 향기롭다.
9	도시를 가로지르는 미디 운하에서 꽃잎들이 떠내려온다. 붉은 꽃잎으로 가득한 강은 핏빛으로 보인다.

10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가게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밤길 드문드문 빛나는 조명이 아직 살아가고자 하는 누군가의 존재를 알려준다. 노래 마소가 1점 발생한다.
11	생 세르냉 성당은 병세를 이겨내기 위해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낮은 울음소리가 성당 내에서 끊이지 않는다. 꿈 마소가 1점 발생한다.
12	뒷골목에는 아무도 치우지 않은 장미꽃들이 무더기로 쌓여 시들어가고 있다. 이것도 누군가가 살아있었던 흔적이었겠지. 어둠 마소가 1점 발생한다.

장밋빛 이경 장면표(1D6)

1D6	내용
1	걸음을 땔 때마다 굴러다니는 장미꽃들이 발에 채인다. 짓밟힌 꽃잎들은 지독한 향기로 감각을 마비시킨다.
2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정원처럼 보이기도 한다.장면에 등장한 PC 전원은 <시간>으로 판정한다. 성공 시 임의의 마소 1점이 발생한다.
3	뿌리내린 꽃이 마력을 앗아가는 것이 느껴진다. 독이 퍼지듯 달콤한 느낌이 오히려 소름끼치게 다가온다. 장면에 등장한 PC 전원은 <꽃>으로 판정한다. 실패 시 임의의 조합으로 마소 2점을 잃는다.
4	꽃이 퍼뜨리는 독향은 너무도 달아 마치 이곳에 PC들이 머무르도록 꼬여내는 것만 같다. 장면 플레이어는 <꿈> 영역에서 랜덤 특기로 판정할 수 있다. 성공 시 1회, 사건 판정 혹은 조율 판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도무지 사람이 살아갈 만한 공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우뚝 서있는 낡은 오두막은 무척이나 이질적이다.
6	뒤엉킨 덩굴들이 다리를 붙들고 마치 놓아줄 수 없다는 듯 가시가 깊숙이 파고들어온다. 마치 영혼에까지 닿을 것만 같다. 장면 플레이어는 랜덤 특기로 판정한다. 실패할 시 운명 변전이 발생한다.

<NPC 및 에너미 데이터>

장미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로, 그 스스로가 하나의 이경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열린 균열에 의해 소년이 이경에 떨어지고, 존재는 소년의 기억을 탐색하던 중 그가 좋아하는 것이 장미꽃임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본질로 삼습니다. 다만 그의 기억만을 통해 재구성되었으므로 실제 식물적인 특성은 본래 장미꽃과 상이합니다. 소년이 떠난 이후 처음 알게 된 고독과 존재의 소실에 대한 공포가 커졌고, 결국 금서에 빙의되어 이경에 균열을 내 존재증명의 마력을 끊임없이 인계로 뿜어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년

어느 날 생긴 세계의 균열의 틈에 떨어져 위의 존재가 존재하는 이경에 추락합니다. 정신을 잃은 사이 자신의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 장미와 그것이 제공하는 보살핌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장미의 존재만으로는 소년의 고독과 그리움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결국 다시금 불안정한 이경에 균열이 생기자 그것이 어디로 통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뛰어 들었습니다. 소년의 출신이 인계 혹은 다른 이경인지, 다시 균열에 뛰어들어 어떻게 살아갔는지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자유롭게 설정해주세요.

금서 <부르짖는 존재증명>

부리는 자의 존재를 타인에게 각인시키는 금서로, 그 숙주가 누구냐에 따라 각인의 방식은 상이해집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형태의 흔적을 남기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번 재액에서는 장미의 영향을 받아 장미꽃을 세상에 피워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단장 <확산>

공격력 5 방어력 4 근원력 4 / 마력 7(-1) 빙의심도 2

영역: 어둠 / 특기: <악의>

장서: <군단 소환> <마술 가시> <감염>

단장 <존재>

공격력 4 방어력 5 근원력 5 / 마력 9(-1) 빙의심도 0

영역: 별 / 특기: <이계> <심연>

장서: <폭탄 상자> <이경 소환> <나락문>

단장 <전심>

공격력 4 방어력 5 근원력 4 / 마력 8(-1) 빙의심도 3

영역: 짐승 / 특기: <꽃> <외침>

장서: <가세> <요화> <성장>

<도입 페이지>

PC들은 대법전 내의 대합실에 문호로부터 소집 요청을 받아 모입니다. 마법사들을 부른 문호의 마법사는 PC들을 환영하며 이번 소집의 연유를 설명합니다.

“틀루즈라는 곳을 아시나요? 프랑스의 도시인데, 그곳에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틀루즈의 문호 지부로부터 긴급히 도움을 요청해왔고, 대법전으로부터의 인력 파견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여러분이 그곳으로 거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자세한 연유를 설명합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즐비하여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대도시, 틀루즈. 그곳에서 우자들의 신체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질병이 빠르게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전신이 장미에 기생당한 것처럼 식물화되어 굳고, 피는 흐르지 않게 되며, 기도마저 줄기에 틀어막혀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병. 대법전은 이 재액에 임시로 <라비앙로즈>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금서에 의한 재액으로 파악되었지만, 현재 해당 지역의 인력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당장 발생한 피해를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안, 여러분이 그곳에서 진상의 파악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호의 마법사는 말을 마무리하며, 틀루즈의 문호 지부로 연결된 독로를 마법사들에게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PC들에게 스파이스 1개씩을 나누어주어도 좋습니다. GM의 재량껏 결정해주세요.) 마력 결정과 분과회명 작성, 도입 마법 처리 등을 마무리하고 독로를 넘어갑니다.

PC들은 툴루즈의 한 찻집에 들어섭니다. 서점을 겸하고 있는 이곳은 툴루즈의 문호 지부입니다. 대부분의 마법사가 자리를 비운 와중, 당직을 서던 마법사 한 명이 PC들을 맞이합니다. 그는 상황 설명과 함께, 현재 재액의 양상이 심각하여 대법전이 직접 도시의 상부 조직과 이야기를 나눠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의 안내에 따라 찻집을 나서면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워,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툴루즈. 그러나 이곳은 이제, 진짜 장미로 뒤덮인 재앙의 근거지일 뿐입니다.

- HO【재액 <라비앙로즈>】, 【툴루즈】를 공개합니다

<메인 페이지>

- 본 시나리오에는 특수 룰 <감염>이 존재합니다. HO【재액 <라비앙로즈>】를 조사할 때부터 적용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플레이어들에게 설명해주세요. 동명의 장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감염> 룰
 - 매 사이클 종료 시마다 짐승 영역의 랜덤 특기로 판정합니다. 판정에 실패할 시 공격력/방어력/근원력 중 하나를 랜덤으로 골라 1점을 낮춥니다. 동일한 분야에 2회 적용은 불가능하며, 공/방/근 모두가 1씩 차감된 다음 새롭게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 감염되어 꽃이 피어난 부위와 감염 수준은 RP적 요소로 PC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의 <감염> 판정에 실패할수록 꽃이 더욱 피어나는 연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세요.
 - 장밋빛 이경에 진입한 후로는 매 장면 종료 시마다 판정하게 됩니다. 이경 진입 이후 해당 사실을 안내해주세요.
- 장밋빛 이경 진입 이후에는 드라마 페이지 중 다시 툴루즈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경 진입 전 툴루즈에서 해야 할 처리(조사, 전투 등)가 남아 있다면 위 사항을 안내하며 그것을 먼저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PL들에게 권유해주세요.
- HO 공개 타이밍:
 - 도입 페이지: HO【재액 <라비앙로즈>】, 【툴루즈】 공개
 - 마스터 장면 <전염병>: HO【격리 병동】 공개
 - HO【툴루즈】 조사: HO【소용돌이】 공개
 - 마스터 장면 <방문>: HO【장밋빛 이경】, 【집】 공개

- 마스터 장면 <부재자>: HO【장미】 공개

<마스터 장면>

1. <전염병>

조건: HO【재액 <라비앙로즈>】를 조사한다.

도시에 퍼진 전염병은, 분명 그 근원을 마력에 두고 있음에도 마치 바이러스를 통해 퍼지는 질환처럼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마법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닥쳐옵니다.

도시에 뿌리내린 꽃은 장미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마력으로 구성된 포자를 흩뿌려 생명을 가진 존재에 뿌리내리는 그것은, 스스로를 파훼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듯 되려 PC들에게 기생하기 시작합니다. PC들의 몸에도 감염의 징후인 장미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광장을 가로질러 빠르게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툴루즈 내에서 제일 큰 대학 병원의 격리 병동으로 향합니다. 격리 병동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PC들은 정부 권한으로 출입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물 <감염> 공개. 1사이클 종료 시부터 적용합니다.
- 만약 1사이클 종료 시까지 HO【재액 <라비앙로즈>】의 비밀이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시점에서 별도의 마스터 장면으로 삽입해주세요.
- HO【격리 병동】 공개.

2. <Moi suis là>

조건: 단장 <확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단장이 힘을 잃으면, 격리 병동의 병세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장 존각을 다룰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외치던 중얼거림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Moi suis là."

나는 여기에 있어.

병동의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PC들에 대한 것은 전달받았다며 인사하던 그는, 환자들의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이 됩니다.

“이상하네요.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식물의 뿌리가 뇌까지 뻗어 일반적으로 ‘살아있다’고 보기 힘든 상태의 환자세요. 말하자면 뇌사 상태에 가까운데...”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상황을 알리기 위해 보호자 분께 연락을 드려야겠습니다.”

간호사는 병실을 빠져나옵니다. **Moi suis là**, ‘나는 여기에 있다’는 외침은 이 재액이 전하고자 하는 말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째서, 그리고 누구에게?

3. <방문>

조건: 단장 <존재> 회수 이후, 이경으로의 진입을 선언한다.

이경으로 통하는 문을 붙잡고 있던 힘이 사라져, 문이 조금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닫히게 된다면 당장 인계로 흘러나오는 마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모 파악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금서 회수를 위해서라면 이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돌아갈 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빠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RP적인 설명으로, 실제로 문이 닫혀 인계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기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해당 내용 때문에 이경 내에서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건너뛰고자 하는 PC가 있다면 안심시켜 주세요!)*

이경 내부로 진입하면, 온통 장밋빛입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꽃과 줄기와 덩굴과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 HO【장밋빛 이경】,【집】 공개
- 해당 마스터 장면이 포함된 장면 이후의 PC의 장면부터, 장면 종료 시마다 <감염> 룰을 적용합니다.

4. <부재자>

조건: HO【집】을 조사한다

분명 누군가 있었던 흔적만이 남은, 이제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살피면 혹, 하고 먼지가 일어나듯 어떠한 환상이 PC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공간에 새겨진 기억의 파편입니다. 한 소년이 우울한 표정으로 장미꽃 한 송이가 꽂혀 있는 물병을 바라본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익숙한 장밋빛입니다. 마치 꽃에게 말을 걸듯이 소년이 중얼거립니다.

“이제 됐어. 나는 돌아가고 싶어.”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아온 건 너야. 너는 이런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어. 좋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네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줬어. 이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런 게 아니야. 이 집에는 없는 게 없어. 그리고 나는 너를 좋아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 없어. 그렇지만 여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야 해.”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떠나면 나는 여기에서 혼자가 돼. 혼자는 외롭다고 네가 알려줬잖아.”

소년이 대답합니다.

“미안해.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지금도 너무 외로워.”

그 순간, 공간이 크게 흔들립니다. 찌적, 어딘가에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향합니다.

“내가 이곳에 떨어졌던 때처럼, 이곳에 균열이 생겼나봐. 나는 돌아가야겠어. 안녕, 잘 있어.”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지 마.”

소년은 대답 없이 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환영이 걸히면, 소년이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남겨진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뜰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거대한 장미꽃이, 봉오리를 오므린 채 숨을 쉬듯 오르락내리락 움직이고 있습니다.

- HO【장미】공개.

5. <불청객>

조건: HO【장미】를 조사한다.

단장의 습격 장면입니다. 길고 깊은 무의식의 너머에서 돌아온 그것은, 앞을 파르르 떨며 분노합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들은 그가 아니야. 그는 어디에 있어? 그를 돌려줘.”

단장 <전심>에 빙의된 그것이, 전심전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부딪혀 옵니다. 단장의 선공으로 마법전을 진행합니다.

6. <기다리는 것>

조건: 단장 <전심>와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단장이 뜯겨 나간 채 힘을 잃은 그것은 가까스로 장미의 외형과 이경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흘러내리거나 터져버리거나 말라 비틀어지거나 쪼그라들 것처럼 형용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는 ‘장미’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이 찢어지는, 괴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없는 이곳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네가 없는 나는 어떤 존재도 되지 못했어.”

“네가 있었기에 나는 비로소 '존재'했어.”

“혼자가 외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를 혼자로 만든 너가 정말 싫었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너가 오지 않으니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소리질렀어. 나는 여기에 있어. 드디어 너에게 달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왜 오지 않아?”

“괴로워. 외로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경의 붕괴가 시작되며 클라이맥스 페이지로 돌입합니다. 만약 아직 장면이 남아있거나 **HO【장밋빛 이경】**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면 장면 보너스를 제공하고, **HO**의 비밀을 공개하며 효과를 적용해주세요.

<클라이맥스 페이지>

이경이 녹아내리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비틀어지며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장미’의 비명 소리가 이경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끔찍하게도 달콤한 선율을 자아냅니다. 단장 세 개가 포개져 금서 <부르짖는 존재증명>으로 편찬됩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그것이 품고 있는 마음을 상대에게 내던져 관찰시키는 힘이 형체를 가집니다. 그 자신이 여기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폭력적일지라도 상관 없다는 듯, 숨 막힐 정도로 짙은 향을 내뿜습니다.

<엔딩 페이지>

금서에게 승리했다

금서의 회수가 마무리되면, 감염의 원인이 되었던 마력이 완전히 봉인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PC**들에게 뿌리내렸던 장미꽃들도 스스로 썩어들어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내립니다. 그러나 이경의 주인과, 그 이경의 붕괴는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왔던 입구는 거의 닫혀가고 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기 전에 뛰어들면, 썩어들어 새까맣게 변해버린 너머의 공간을 뒤로, **PC**들은 먼지투성이의 수도원 바닥에 차례로 쿵, 하고 떨어집니다. 무사 귀환입니다.

이후 인계에서의 재액의 영향 또한 사그러듭니다. 마력을 잃은 기생물은 **PC**들의 것이 그랬듯 썩어 부스러집니다.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상흔을 입은 우자들은 회복의 시간을 가진 뒤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들은, 다른 모든 가족과 친구들의 눈물어린 배웅을 받으며 안식을 찾습니다. 아직은 문호에서 수습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이것 또한 결국 정리될 것입니다. ‘장미’가 있었던 이경은 완전히 붕괴하여, 다시는 열리는 일이 없도록 소멸합니다. 그 자신도, 그의 흔적도 전부 바스라져 사라진 지금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이 도시가 품고 살아갈 깊은 흉터자국 뿐입니다. 마법사들은 툴루즈 문호 지부의 큰 감사 인사를 받으며 대법전으로 귀환합니다.

금서에게 패배했다

금서의 회수에 실패하면, 그것이 뿜어내는 <감염>의 마력이 오히려 더욱 거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이 이경의 주인과 공간에 뿌리내려 강제로 붕괴를 멈춥니다. 숙주를 완전히 장악한 그것은, 다시금 PC들과 인계를 향해 그 마수를 뻗치려 시도합니다. 처음 들어왔던 입구는 거의 닫혀가고 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기 전에 뛰어들면, 날카로운 가시와 같은 마력이 PC들을 꿰뚫기 직전, PC들은 먼지투성이의 수도원 바닥에 차례로 쿵, 하고 떨어집니다. 벌어져 있던 틈새가 닫힌 것입니다.

공급되던 마력원이 사라지자, 우자와 PC들에 뿌리내린 기생물은 힘을 잃고 긴 시간에 걸친 관리를 통해 제거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상흔을 입은 우자들은 오랜 시간 뒤 가까스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들은, 다른 모든 가족과 친구들의 눈물어린 배웅을 받으며 안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PC들은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균열이 재발한다면, 동일한 재액이 시작될 수 있는 두려운 가능성을 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액이 다시금 발발한다면, 그 수준은 더 이상 도시 하나 규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핸드아웃>

재액 <라비앙로즈>	비밀
틀루즈에 퍼지고 있는 식물성 재액으로, 우자들에게는 전염병으로 여겨진다. 영향을 받은 우자들의 신체에 마치 기생하듯 장미가 돋아나며, 전신이 꽃으로 뒤덮이면 곧 숨을 거둔다.	모든 꽃에는 불온한 마력이 서려 있다. 그것에 닿는 것만으로 그 영향력 아래 놓인다. 그것은 마법사 또한 예외가 아니다.
틀루즈	비밀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지만, 현재는 정말로 장미에 뒤덮인 재액의 온상.	도시를 뒤덮은 불온한 마력의 흐름은, 전염병의 확산세와 일치한다. 마력의 근원을 찾는다면 병의 확산 또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되었으며, 골목마다 장미내음이 어지러울 정도로 가득하다.	
격리병동	비밀
병세가 심한 환자 위주로, 대학 병원의 격리 병동에 단체로 수용되어 있다. 많은 환자들이 뇌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체의 기능을 상실해, 생명 활동만을 유지하고 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에라도 밭을 디딘 것 같이 향기로운 내음이 가득하다.	그들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하나, 기도마저 가시듯한 줄기로 뒤덮여 소리가 나지 않는다. 단장 <확산>에 빙의되어 빠르게 병세가 진행되는 중이다.
소용돌이	비밀
도시를 뒤덮은 불온한 마력의 소용돌이. 장미 내음이 짙다.	현재 내부 공사로 폐쇄된 자코뱅 수도원 내부에 이경으로 통하는 입구가 존재한다. 단장 <존재>가 통로가 닫히는 것을 막고 있다. 단장을 회수하면 통로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할 것이다.
장밋빛 이경	비밀
장미꽃 내음이 가득하다.	인계와의 시간의 흐름에 차이가 있다. 체감 속도는 동일하지만, 이곳은 인계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듯하다. 뿌리내린 꽃이 공간의 마력을 가득 빨아들이며, PC 전원은 일시적 마력을 2점 획득한다.
집	비밀
누군가 살았던 듯 사용감이 있는 공간. 무척 낡았다.	어떤 소년이 이곳에 머물렀다. 그는 이곳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장미	비밀

안뜰에 잠들어 있다. 이곳의 주민인가?	단장 <전심>이 빙의되어 있다. 인계에 퍼진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마력의 포자를 흘뿌린다. 자신의 잠을 깨운 PC들을 습격한다.
-----------------------	---

<조킹&기타 정보>

- 이경의 입구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감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병세는 전신이 완전히 꽃에 뒤덮여 꽃다발과 다를 것 없는 수준의 중증 환자도 존재하는 반면, 몸 어딘가에 꽃봉오리가 한두 개 정도 피어난 수준의 경증 환자도 존재하며 수도 더 많습니다.
- 재액의 영향으로 거리에 통행하는 인구는 거의 없지만, 최소한의 생활의 영위를 위해 트램이나 지하철, 버스 등이 아직 운행하고는 있습니다. 생업이 달려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게 운영 등의 사회 활동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재택 근무로 전환하거나 업무를 임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 재액이 발생한 것은 약 1~2달 전, 중증 환자가 사망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은 약 2주 전부터로 대략적으로만 정해두었으나 임의로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처음 재액이 발생한 시점이 너무 예전이 되지만 양게 해주세요.
- 장미꽃이 뜯기거나 상한다고 해서 숙주에게 고통이 전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정해 두었으나, 이것 또한 임의로 변경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감염으로 피어난 장미는 외형과 질감, 향 등에서는 실제 장미와 완전히 동일하나 성분 조사 등을 하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기>

영향을 받은 작품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김춘수의 <꽃>입니다...만, 이런 시나리오를 써놓고 두 거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써도 될지 자신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BBC <닥터 후>에서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식물 아포칼립스' 키워드를 받아 작성하게 된 시나리오입니다. 툴루즈를 배경으로 하게 된 것은, 생텍쥐페리가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조사하던 중 발견하게 된 것이 툴루즈가 '장미의 도시'라고 불린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무려 4번째로 큰 도시라고 해요. 테플을 돌리며 제법 포스트코로나 시국에 어울리는 시나리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매번 먹던 그밥 그나물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 쓰고 보니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